

美國에서의 辛亥革命 研究動向

[MODERN CHINA, Vol. 2 No. 2, April 1976]

조셉 애쉐링(美國 오래곤大) 著
閔斗基·崔晶妍譯

辛亥革命은 그 뒤를 이어 일어난 더욱 거대한 革命的 戰爭때문에 오랫동안 별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或者는 그것이 「革命」이라 불리워질만한 것인가를 문제삼기 조차 하였다(랜킨, 1971:序). 그러나 그것은 수천년간 지속되어온 專制秩序를 終息시켰다. 君主制는, 비록 中國과 西歐의 共和制論者가 원하였던 바 그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共和國으로 대치되었다. 王朝의 正統性에 대한 儒教的 기반은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비록 그것을 대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이렇다 할 만한一致된 見解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辛亥革命을 그 보통쓰는 廣義로 1900年부터(혹은 1890年으로부터도) 1913年까지의 全時期를 말하는 용어로 본다면, 이 時代의 重要性은 더욱 분명해

진다. 科舉制의 廢止는 紳士身分에 대한 傳統的인 基準을 파괴하였다. 商會(商人聯合體)의 設立은 상인들의 政治過程에의 參여를 허용하고 장려하기까지 하였다. 立憲主義의 改革은 地方에리즈의 權力を 前例없던 정도로 制度化시켰다. 新軍이 成立하여 軍人們은 그들과 相對的인 文官의 權威와 비등한 「近代的」 權威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變化를 推進시켰던 힘은 帝國主義가 中國을 瓜分하고 심지어 中國人을 멸망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危機意識에 의해 高揚된 民族主義였다.

이러한 變化들의 重要性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辛亥革命은 現代中國의 根源을 찾으려는 歷史家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研究課題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비평하려는 예

의 著書와 論文은 대체로 1960 年代의 활발한 研究의 產物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이러한 研究의 始初일 뿐이다. 앞으로 또 다른 研究들이 곧 나타나서 우리들의 理解에 중요한 것을 첨가할 것이다. 사실, 이 분야도 이제 研究의 資料와 主題가 重複되는 정도로까지 발달하였다. 近代中國의 研究는 以前에 취급된 일이 없는 主題에 대해서만 著書나 學位論文이 작성된다는 오늘날의 경향과는相反되는 경향을 따라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기는 하나 辛亥革命研究의 現狀이 유리한 점을 가졌음은 명백한 일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相異한 視點과 接近方法을 갖고 연구한 사람은 서로 아주 달리 보게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다. 그리고 적어도 나는 이미 앞에서 그 이유를 언급한 바 있듯이 다시 검토될 수 없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려 한다.

연구할 것이 많이 남아 있고 다시 연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發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長文의 批判의 기본적 구성 요점은 舊來의 定說에서 벗어나 이 時代의 社會·政治的 變化를 精緻하게 분석하는

흐름 속에서 辛亥革命研究가 發展해 온 길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精緻한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複雜性은 더해진다. 舊來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포기되면 그 대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비평에서의 나의 초점은 연이어 연구된 성과에 의해 제기된 새로운 문제에 두어진다. 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틀은 啓發的인 것이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批判的이다. 이러한 식으로 나는 論文批評의 기능과 研究成果의 要約의 기능을 결합하고자 한다.

孫文中心의 通說

지금까지 이루어진 解釋上의 進展을 알고자 한다면 《辛亥革命에 관한 中國의 歷史記述》 Chinese Historiography on the Revolution of 1911 (1975)이라는 윈스턴 시이에(Winston Hsieh, 謝文孫)의 유용한 文獻爲主의 調查를 훑어보면 된다. 시이에氏는 孫文이 당면했던, 그의 政治生活中 매우 어두웠던 시절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독특한 입장에서 辛亥革命研究의

「正統學派」가 성장해오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1913年의 「第二革命」의 실패 후 中國으로부터 망명 해야 했고 또한 그의 以前의 많은 革命同志로부터 버림받은 孫文은 그의 政治的 正統性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神話를 필요로 하였다. 그것은 民國의 創業에 대한 孫의 貢獻이란 神話이어야 했다. 시이에氏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孫) 자신의 下位者로부터 그(孫)의 指導權에 대한挑戰이 있게되자…… 孫中心의 그룹으로 하여금 全革命運動 과정에서의 그의 指導權이 논난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것이고 그의 元勳으로서의地位도 그러하다고 주장하게 하였다.」 (시이에, 1975:18)

이 당시의 孫의 著述은 1949年 以前의 中國의 歷史記述을支配하였던 通說의 基礎를 제공하였고 또한 西歐人과 최근의 中國人の記述에 강하게 영향을 주었다. 歷史記述의 中心部에는 孫을 스타로 만드려는 정교한 謀議理論이 있어 이 理論은 同盟會內의 急進主義의 亡命者로 이루어진 그의 热誠集團이 손쉽게 異民族인 滿洲族의 清朝를 頽覆시키고 共和政府의 時代를 到來시켰다는 것이다. 이 通說의 成長과 精巧함에 대한 시에氏

의 記述은 훌륭하다. 辛亥革命에 대한 1949年 以後의 中國人の 歷史記述은 「新正統論」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그의 論議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가 주목하는 바와 같이 中共에서 출판된 모든 중요한 史料集은 孫이 참여한 革命組織들의 年代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맙시스트들의 史料編纂의 內容에 대하여 시에氏가 그다지 共感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맑스—레닌主義者理論의 獨斷的인 적용」(p.59)이라든가, 그 결과 생긴 「理論과 現實의 異리」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다. 「歷史的 客觀性」(pp.4, 33)과 「眞實을 추구하고 提示하는 歷史家의 임무」(p.1)에 대한 自由主義的 信念을 주장한 것을 보면 그는 약간 구식이다. 中國에서의 歷史記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그 자신의 要約을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이러한 自由主義的 信念일 것이다. 그에 따르면 맑스主義者の 階級分折과 레닌主義者の 帝國主義에 대한 관심은 辛亥革命時期의 研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새로운 問題를 제기하였고 특히 秘密結社, 新軍, 革命黨, 立憲派

등과 같은 중요한 집단의 階級的 性格과 政治的 역활에 대하여 큰 관심이 경주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史學史的 理論이라는 관점에서 오는 중대한 결점이라고 생각되기는 하나 그러나 이 冊은 이 分野에 대한 유용한 文獻解題的 入門書로서 쓰여졌고 그 점에서는 성공하였다. 이 分野에 대한 중요한 研究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冊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만 두가지 경고만을 들고 싶다. 유감스럽게도 시에氏의 웨이드—자일式의 로마字表記는 신뢰할 수 없다. 誤謬가 너무 자주 눈에 띈다. 둘째로, 이용할 만한 文獻目錄이 되려면 꼭 있어야하는 순수한 基本史料가 빠져 있는데 이는 新聞과 公文書資料가 言及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本批評이 다루게 될 다른 研究成果들에게는 필수인 것들이 있다. 시에氏가 매우 솔씨 있게 가려낸 正統的 通說을 넘어서려는 學者는 그의 文獻目錄을 구성하고 있는 通說的 史料도 넘어서야만 할 것이다.

通說을 초월할 필요는 辛亥革命에 대한 다른 研究를 검토해 보면 곧 나타난다. 이 批評이 다루는 8개의 著書中 6개가 開港場과 海

外에서의 革命黨員들이나 또는 그 중 한 사람을 다루고 있다. 이 批評의 뒷부분에서 清末의 改革, 立黨運動, 브르조아, 民衆의 不滿 그리고 내 생각에 이 時代의 중요한 社會·政治問題라고 생각되는 것 등을 다룰 때에 나는 주로 論文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들에 관한 著書들은 거의가 아직 發刊되지 않고 있다.

여러 著書들 중에서 正統的 通說의 傳統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해롤드쉬프린(Harold Z. Schiffelin)의 《孫逸仙과 中國革命의 起源》 *Sun Yat-sen and the Origins of the Chinese Revolution* (1965)이다. 孫文 個人에게서 中國革命의起源을 찾았기 때문에 쉬프린은 舊來의 通說의 中心的 教義를 펼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冊은 쉽사리 무시할 수는 없는 冊이다. 學問的 素養이라는 말을 좁은 意味에서 쓴다면 그는 이점에서 우수하다. 그의 冊은 調査가 잘 되어 있고, 分析的이며, 글이 제대로 쓰여졌으며 意味가 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결론을 내리는데는 극도로 신중하였지만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데 주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 타월한例가 孫의 革命運動方式의

설명하기 곤란한 侧面， 즉 孫이 그의 革命計劃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西歐와 日本의 帝國主義者들 중에서도 「가장 投機的인」者들과 결합하려 한 경향을 다룬 부분이다.

마리우스 잔센(Marius Jansen)은 20여년전 출판된 《日本人과 孫逸仙》 *The Japanese and Sun Yat-sen* (1954)이란 그의 저서에서 孫이 在朝・在野의 日本人 팽창주의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것을 최초로 상세히 다루었다. 엘트만(Albert Altman)과 쉬프린도 최근 第1次 世界大戰 당시의 이러한接觸에 대하여 우리의 理解를 돋고 있다. 이 당시 孫은 日本이 袁世凱에게 요구한 21個條에 반대하기를 거절하고 그 대신 袁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日本이 지원하는 軍事行動 중의 하나를 조직하기 위한 總 140萬圓을 받아들였던 것이다(엘트만과 쉬프린, 1972). 조셉 화스(Josef Fass) (1967)는 孫이 1917年에 北京의 段祺瑞政權에 대항하는 그 자신의 廣東軍政府를設立하려고 독일로부터 200萬弗을 받아낸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辛亥革命以前 時期로 돌아가 제이 킴 먼홀랜드(J. Kim Munholland)

(1972)의 論文과 제프리 바로우(Jeffery Barlow)(1973)의 좀 더 방대한 學位論文은 孫이 파리와 베트남에서, 특히 1906~1907年間에, 불란서의 팽창주의자들에게 의존했던 사실을 파헤치고 있다.

이러한 事實들은 모두(同盟會의 設立으로 끝나고 있는) 쉬프린의 冊의 對象時期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쉬프린은 1895年에 있던 孫과 開港場의 침략적인 英國言論人 집단과의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孫과 그의 集團이 「民族主義者인가, 帝國主義의 走狗인가」(쉬프린, 1968: 77) 하는 질문을 서슴없이 던지고 있다. 그가 비록 두가지중에서 어느 쪽에 찬성하는가를 분명히 答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기는 하여도) 이해할 만 하지만, 그는 「興中會의 親西歐的 指向에 대한 民族主義者の 理論根據」(p.79)를 재구성함으로써 분명히 前者の 見解에 기울고 있다. 쉬프린은 孫과 그의 集團이 「단순히 그들의 政治的 野望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中國의 主權을 회생하려고」(p.79)하였다는 것을 否定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또 다른 뛰어난 特性은 그들이 西歐的, 基督敎的傳統의 知的,

精神的 產物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西歐的 評價基準에 익숙해진 눈을 가지고 자신의 祖國의 制度를 비판적으로 評價한 中國人이었다. 그들은 中國에, 적어도 初期段階에는 外國人顧問의 힘을 빌려 유럽적인 基準의 行政과 司法을 도입시켜야 한다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孫의 外國人 協力者가 英國人 아닌 日本人이라는 點을 깨닫게 된다면 분명하고 그럴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나서 쉬프린은 孫이 西歐價值에 대해서는 「知的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비해 日本에 대해서는 「感情的」인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論하였다. 「日本은 항상 孫의 각별한 고려와 관용을 받아왔다. 왜냐하면 日本은 中國에 대한 帝國主義 侵略에의 적극 참여에도 불구하고 孫에게 있어서는 共通의 東아시아 文化遺產을 共有하고 西歐에 대한 共通의 희생자로서 「당연한 友邦이었기 때문이다」(p.146). 그러나 孫이 「西歐的, 基督教的 傳統의 精神的 產物이었다고 하다면 그가 中國이 日

本과 共有하는 「共通의 東아시아 文化遺產」 속에서 어떠한 매력을 느꼈는가를 묻게된다.

政治的 傳記는 歷史에서 극도로 어려운 부문이다. 主體人物에 대한 荣美와 열광과 감정이입을 유지하기 위하여 歷史家는 끊임없이 解釋이 辭明이 되도록 하고, 펼연적으로 册의 中心이 되어야 할 主體가 事件의 中心에 위치하도록 허용하기 쉬운 것이다. 쉬프린은 아마도 이러한 유혹과 革命에서의 孫의 역할에 대한 通說의 見解에 너무 많이 굴복한 것 같다. 예를 들면, 通說에 따르면 孫은 興中會의 設立者 兼 指導者로 간주되고, 따라서 興中會는 共和制革命을 主唱한 集團이어야 한다. 쉬프린은 1895年에 孫이 「하와이에서 이미 조직을 만들었고…… 홍콩에서도 또한 그 指導者로서 인정되었다」(p.51)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는 또한 興中會가 비록 증명할 기록은 없을지라도 그 하와이 시대에서조차도 共和制를 주장하였다는 데에 대한 논의를 자주 하고 있다(p.43). 그러나 후에 그는 楊衝雲⁽¹⁾이 「이 運動의 財政을 支

(1) 이 荣미롭고도 잊혀진 人物에 대해서는 薛君度의 「孫文, 楊衝雲과 初期 革命運動」 Sun Yat-sen, Yang Ch'u-yün and the Early Revolutionary Movement(Journal of Asian Studies 19, 3 (1960. 5) : 307-318)을 보라.

配」하였고 따라서 興中會의 主席 으로 선출되었다」(pp.68-70)는 것과 「政策과 實踐案의 問題에는 孫과 楊 모두 何啓의 意見에 따랐다」(p.70)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7페이지 뒤에서 우리는 이러한 何啓의 지도때문에 共和制로의 目標가 유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이 당시에는 孫보다는 오히려 楊이 더욱 共和制를 주장하였다는 증거가 있다」(p.69)는 것과 孫은 같은 시기에 공공연한 君主制 主張者인 進士 劉學詢과 廣州에서 謀議하였다(pp. 64-65)는 사실을 (약간 불가사의 하게) 알게되면 孫의 共和制主張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 쉬프린이 孫의 舉事計劃이나 운동방안에 나타나는 이같은 모든 모순점을 밝혀 내는데 크게 공헌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矛盾들을 항상 「융통성」(p.77)이라든가 「孫의 性格上의 강한 實利主義的 경향」(p.65)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불만스럽다. 「個人의 性格上의」 實利主義와 政治的 機會主義 사이의 分界線은 어디에 있는가? 쉬프린의 책의 가장 커다란 흡은 그 構成과 論證에 있다. 이책은 본질적

으로 同盟會의 設立에 관한 책이며 또한 그 設立에서의 孫의 역할과 그 事件의 歷史的 意味를 모두 과장하고 있다. 「1905年 여름무렵에 孫은 어떠한 條件下에서도 더 이상 滿洲人統治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러 異質分子들을 가지고 새로운 革命的 結合體를 단들어냈다」(p.347)고 쉬프린은 記述하였다. 이같은 孫의 獨力에 의한 同盟會의 設立이란 斷定은 다른 곳(p.8)에서도 반복된다. 또한 同盟會의 實權과 結束은 과장되어 있다. 쉬프린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혁신적 산물이더 進步的 政黨의 原型이었고…… 이 새로운 組織은 여러 省으로부터의 전국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다양한 階層에 기반을 두었다」(pp.8-9). 「그의 생애 최초로 孫은 조직된 나라를 위한 政治的 運動力を 위하여 人材와 才能들을 지휘하였던 것이다」(p.362). 그러나 불행히도 同盟會를 統一되고 全國的인 政治組織으로 인식한 것은 환상에 가까우며. 또한 쉬프린이 그것을 그렇게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은 그답지 않은 것이다.

革命家傳記의 危機

우리가 革命에 대한 孫 中心의 通說的 解釋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곧 그를 代替하는 2개의 傳記가 있다. 하나는 黃興에 관한 책 오래되고 아주 빈약한 研究이며 다른 하나는 宋教仁에 관한 脡신 훌륭한 책이다. 1961年 黃興의 사위인 薛君度는 《黃興과 中國革命》 *Huang Hsing and the Chinese Revolution*을 출판하였다. 그것은 솔직한 孝行이었으나 薛은 공공연히 「中華民國의 共同設立者」(1961:vii)로서 黃興을 孫文과 동등한 위치로 평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論議는 偏枉적이고 매우 신빙성이 회박하다. 黃의 모든失手는 담요 밑에 가리워져 있다. 가장 두드러진 例는 薛이, 1911年 11月 清軍이 渡江하여 漢陽을 다시 점령한 후 黃이 武昌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였다(pp. 118-119)는 것을 많은 證人들의 반대되는 證言記錄에도 불구하고 否定한 것이다. 이 册의 더욱 커다란 결점은 辛亥革命이 興中會와 同盟會가 主導한 「일련의 성공하지 못했던 열번의 革命起義」로부터 결과하였다 는 正統的 通說學派의 생각을 고

지 곧 대로 따르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의 革命起義」를 主導한 者는 孫이 아니라 黃이었다(p.56)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薛이 하고자 한 일의 전부인 것이다. 同盟會의 結束과 革命運動의 主導權에 대한 神話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케이·에스·류(K. S. Liew)의 《民主主義를 위한鬪爭》 *Struggle for Democracy*(1971)이 크게 공헌한 바는 그가 同盟會의 結束이란 神話を 여지없이 파괴하였다는 점이다. 아직도 同盟會가 1905~1906年의 매우 짧은 時期를 제외하고는 쥐프린이 말하는 바처럼 孫文이 「자휘한」「組織된 全國的政治運動體」이 있다고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 그의 册의 第VII章(pp.68-84)을 꼭 읽어보아야 한다. 류의 解釋를 따르면 同盟會는 「各個人으로 구성된 단일한 組織體라기보다는 脡신 省聯合體에 가까운 것이었다……黨員은 中央權威에 대해서 보다는 그들各自의 省指導者에게 우선 충성하였다」(p.68). 그 결과, 遠心的 傾向은 급속히 組織을 해체시켰다. 孫과 黃興이 1907年 2月 國旗의 圖案問題를 놓고 다투었을 때, 宋教仁은 「참을 수 없는 정도로 거의 독재적이고 비타협적」(p.71)인 孫의 지도권에

대하여 반발하였다. 그후 곤 孫이 東京을 떠나는 데 가로 日本이 그에게 주었던 10,000圓 중 8,000圓에 대한 報告를 하지 않았을 때. (당시 同盟會의 기관지였던 《民報》의 편집자였던) 章炳麟은 同盟會로부터 孫을 추방하려는 시도를 主導하였다(pp.71-73). 좀 더 후인 1907年 주로 揚子江 流域出身 革命家들이 共進會를 구성하여 또 다른 「分派活動」이 나타났다. 共進會는 辛亥身命에 가담한 첫 번째 省인 湖南에서의 運動뿐 아니라 마침내 성공하였던 1911年 10月의 武昌起義를 주동하였던 核心集團의 하나이다. 共進會는 種가 표현하는 바와 같이 「모든 意圖와 目的에도 불구하고…… 同盟會의 경쟁 상대였다」(p.76). 그의 主導權에 대한 이러한 挑戰때문에 孫은 1910年 同盟會를 간단히 포기하고 샌프랜시스코와 東南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中華革命黨을 만들어 새로운 黨員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pp.80~82). 1910年 中期에 東京에서의 짧은 滯留時에, 孫은 宋教仁과 그 외의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論議에 참석했던 사람의 말을 따르면 그의 대답은,

「同盟會는 오래 전부터 解體되어 왔다. 그렇게 할 것을 강하게 느꼈던 사람은 그들 자신의 독자적 기관을 조직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宋이 그같은 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孫은 이렇게 말하였다. 「黨員들은 總理(즉 孫文 자신)를 공격하였으니, 내가 없이 어떻게 同盟會가 存在할 수 있겠는가? 모든 資金은 내가 모금하였으니 黨員들은 그에 대해 나에게 따질 권리가 없으며, 그를 가지고 攻擊對象으로 할 권리는 더더구나 없다」(p.80).

孫의 이러한 專斷的 태도에 대한 반응이 주된 원인이 되어 宋教仁과 몇몇 사람들은 1910年에 同盟會의 中部總會 設立의 뜻을 품게 되고 1911年 실제로 설립하였다. 中部總會는 성공적인 武昌起義를 궁극적으로 일으켰던 革命家들과 同盟會와의 유일한 연결점이이었다. 이리하여 通說의인 歷史記述은 이것을 同盟會 組織의 정규적인一部로 묘사하기 위하여 고심하여 왔다. 사실 種가 밝혀주는 바와 같이 그것은 한 分派였으나 그 宣言은 孫文을 總理로 언급하지는 않고 그 대신 共同指導體制의 原理를 내세웠다(pp.96~98). 財政上으로 運營上으로 그것은 나머지 同盟會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있었다.

류는 孫과 同盟會를 그들이 찬탈한 革命舞臺의 中心된 자리에서 추방하기 위하여 그 이전 누구보다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또한 宋教仁을 歷史의 中心에 위치시키고 그의 中部總會를 「武昌起義의 樞軸」(p.100)으로 보려는 古典的 傳記作家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 시도는 실패한다. 中部中國의 革命家들에 대한 中部總會의 權威에 대한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그는 1911年 10月 7일의 中部總會의 決議를 제시하여, 「中部總會는 革命家들의 행동은 자제되어야 하며 봉기계획은 보다 나은 상황 전진이 있을 때까지 유예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였다」(p. 101)고 하였다. 그러나 그 決議는 간단히 무시되었고 革命은 그 나흘 후에 발발하였다는 사실을 류는 강조하지 않고 있다. 宋教仁의 中部總會는 孫文이 同盟會에 대해 그랬던 바와 마찬가지로 中國內의 革命集團의 활동에 대해 아무런 權威도 갖지 못하였다.

그 여러가지 短點에도 불구하고 쉬프린, 薛, 류에 의한 세개의 傳記는 海外의 革命集團을 分析할 수 있는 觀點의 폭을 넓혀 주었

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觀點도 그 自體로서는 充分한 것이 못 되는 것이니 그 어느 것도同一한 事件에 대한 서로相反되는 記錄을 읽어보면 쉽게 그 흔이 드러나는 관점인 것이다. 예를 들어 同盟會의 設立과 같은 중요한 경우를 보면, 쉬프린으로서는 유럽에서 孫이 留學生을 가입시킨 일까지 연결짓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孫은 일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指導人物로 되어 있다(1968: 344-366). 그러나 薛은 孫이 黃興과 손잡으려고 크게 노력한 것을 강조하고 中國(革命)同盟會란 명칭에 「革命」이란 용어를 넣고자 한 孫의 소망이 거절되었던 점을 주목하며 또한 새로 만들어진 組織의 指導體系內에서 黃이 이끄는 派가 主導權을 잡았음을 강조하였다(1961:40-45). 류의 記述은 1905年 孫의 東京 도착 이전의 革命派學生들간에 聯合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점, 初期에는 孫이 學生들로부터 孤立되었던 점, 그리고 어떤 學生이 革命의 목표가 民主制인가君主制인가를 물었을 때 孫이 명확한 답변을 주저한 점 등을 강조하였다(1971:40-48). 단일 이러한 事件들에 대해 오직 한가지의 記述만을 읽어야 한다면 (또는 읽도

록 부과한다면) 쉬프린을 택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薛과 그리고 특히 류는 그 記述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鑄正見解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册들 중 어느 하나가 이 主題에 대해 최종적 해명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急進主義의 研究

마이켈 캐스터(Michael Gasster)의 《中國의 知識人과 辛亥革命》 *Chinese Intellectuals and the Revolution of 1911*(1969)을 가지고 政治家의 傳記로부터 政治一思想史로 관심을 옮겨 보자. 그러나 이 부문에서도 여전히 同盟會가 주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册의 주된 초점은 모두 同盟會의 代辯人인 汪精衛, 胡漢民, 章炳麟과 같은 사람들에게 쏠리고 있다. 캐스터의 册의 副題는 「近代中國의 急進主義의 탄생」이고 그의 결론은 「20세기 中國에 있어서는 急進主義가 장땡패였다」는 것이다(p.248). 더욱 분명하게 캐스터는 다음과 같이 論한다. 즉, 「20세기의 中國의 思想과 政治를 支配한 急進主義는 1903~1908年間에 최초의 빛을 보았고 그 최초의 승리

를 거두었다」(p.ix). 그 몇년간의 急進主義者들의 「승리」에 대한 그의 記述은 民族主義, 共和制論, 反滿主義, 無政府主義 그리고 끝으로 章炳麟의 古典的 種族主義, 佛教的 平等主義, 哲學的 無政府主義를 섞은 독특한 思想의 形成과 發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유능한 방법으로 다루어져 있어서 만일 同盟會의 〈民報〉에 나타난 견해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캐스터의 册은 그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캐스터의 分析에서의 誤謬는 草命派들이 東京에서 발표한 것이 바로 中國內의 政治動向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假定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특히 急進主義가 1908年에 몇개의 주목 할 만한 승리를 기록하였다는 생각은 나에게는 우스꽝스럽게 생각된다. 우리가 아는 바와같이 同盟會는 그 당시 組織上으로 심각한 分裂狀態에 있었고 中國內部에서는 立憲君主制를 진지하게 시도하여 보려는 사람들의 지지자들이 날로 증가하였다. 당시 (여러 종류의) 내쇼날리즘의 成長이 있었고, (형태상으로는 君主制건 共和帝건 간에) 立憲政府로 향하는 추세가 있었다는 것은 명하다. 캐스

터에게는 아마도 이것이 「急進主義」의 成長에 대한 증거가 되었으리라. 왜냐하면 그는 梁啟超의 「近代化의 목표」에 대한 신념과 「철저하게 近代化하려는 욕망」(p. 239)을 근거로 梁의 著述도 그範疇內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 用語의 定義를 엄청나게 확대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梁의 경우 그는 中國을近代化시키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일면에서 「急進主義者」이며, 章炳麟과 劉師培는近代化의 全過程에 대한 그들의懷疑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懷疑때문에) 또 다른一面에서 「急進主義者」라 한다면 「急進主義者」라는 用語의 分析上의 有用性을 의심하게 된다.

또한 思想史家가 나와 같은懷疑主義者에게 언제나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推論이 그들의 研究主題의 行動을 설명하는데에 어느정도는 有用하다는 것이다. 東京에서 「急進主義者」들이 어떤 글을 쓰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中國에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나에게는 아무 흥미가 없다. 이 경우, 우리들은 日本에서 망명하고 있는 동안 분명히 과격

한 글을 썼던 많은 知識人을 알고 있다. 그러나 中國에 귀국해서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이러한 다양한 急進主義的理論들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08~1911年時期에 清朝의 滿洲人官僚인 端方에게 봉사하였던 劉師培는 가장 현지한例이다. 章炳麟조차도 1912年 몇명의 改革派와 清朝의 舊官僚들과 함께 國民黨에 대항하는 政黨을 구성하는데 참여하였다. 汪精衛는 1911年 北京에서 석방된 후 노련한 官僚인 袁世凱가 받아들일 만하게 共和主義를 定義하고자 그와 友好的으로 의견교환을 한 것 같다. 사실 1911年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대개 비슷한 條件으로 政治鬭爭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急進主義者」들의 독자적인 진영이란 전연 없는 것 같아 보인다. 1912년에 孫과 대부분의 그의 同僚들은 袁世凱를 앞세워 全國的 結束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急進主義가 政治的 行動에 있어서의 「장맹파」인가? 아니면 그 것은 그저 急進的 知識人們의 刊行物에서의 「장맹파」인 것인가?

그러한 의문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데어리 박쿠스 랜킨(Mary Backus Rankin)의 《中國의 初期

革命家들：1902~1911年 時期의 上海와 浙江地方의 急進的 知識人們》*Early Chinese Revolutionaries: Radical Intellectuals in Shanghai and Chekiang, 1902~1911* (1971)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이제 드디어 그들의 역할이 과장되지 않는 革命家들에 대한 研究이며, 急進主義者라는 用語의 적용이 모두 합당하게 여겨지는 急進主義者들에 대한 研究를 다루게 되었다. 랜킨은 「革命運動과 辛亥革命」을 비판적으로 구분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革命派가 아니라 立憲派, 軍將校, 그외의 사람들이 辛亥革命을 左右하는 힘을 가졌다」(1971 : 序, 2)는 것을 승인한다. 그녀는 1907年 이후 中國內에서 急進主義가 쇠퇴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낭만적, 급진적 政治性向은 辛亥革命의 初期的 局面에 나타났다. 그것은 결코 소멸하지 않았다. 그러나 1907年 이후 그重要性은 쇠퇴하였으며 1911年の 革命은 急進主義者の 계획의 결과는 아니었다. (p.6)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책이 革命의 勝利 속에서 왜 革命派가 失敗하

였는가에 대한 根本的인 몇 가지 解答을 제시한 것이다. 1903年 章炳麟과 鄒容이 일으켜 선동죄로 (쉽게 피할 수도 있었는데도) 체포되었던 〈蘇報〉事件으로 革命派는 「그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活動基地를 희생하고서였다」(p.78). 마찬가지로 1907年 徐錫麟과 大女流革命家인 秋瑾과 같은 「浪漫的 革命家」의 (游俠의 傳統을 매우 의식한 듯한) 「英雄的인 犠牲」에 의 獻身은 反滿名分에 대한 광범위한 일반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革命派 자신의 組織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意味에서 그들은 「레닌型의 革命家와는 正反對」(p. 176, pp.187-190)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革命의 到來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추구한 바로 그 전술은 장래 革命이 닥치면 그들이 그것을 主導하는 것이 組織的으로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古典的 教育을 받은 이러한 上層의 革命家들은 西歐化된 基督教人 孫文과는 相異한 부류이다. 또한 그들은 동지들의 劇的 犠牲에 의 경향을 자주 반대하였던 宋教仁式의 세심하고, 끈기있고 조직적인 革命에로의 接近을 고집하지

도 않았다(류, 1971:49-104). 그러나 우리들은 文化的 으로 그리고 政治的으로 孫이나 宋보다 훨씬 더 中國內에서 活動하는 다른 革命家들에게 가까웠던 個人들이 이 浙江集團에는 있었던 것을 알게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랜킨이 이야기하는 몇가지 主題는 겉토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全體로서의 中國을 代表한다고 할 수 있으리라. 우선, 舊來의 歷史記述은 革命派와 改革派를 분명히 구별짓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아마도 日本에서의 革命派와 梁啓超와 같은 사람들과의 날카로운 紙面論爭으로부터 발전하였으리라. 류는 심지어 革命派와 非革命派間에는 「영구하고도 전멸 수 없는 大海」(1971:159)가 가로놓여 있다고 단정하기조차 한다. 랜킨은 中國內에서는 그러한 구분은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을 例證한다. 官僚들은 공공연한 革命派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의하였고(1971:86-87), 유력한 鄉紳은 革命派의 學校를 후원하였으며(pp.157-160), 革命派는 日本軍官學校 入學資格을 획득하기 위하여 뇌물을 주고 官僚로 있는 친척들에게 접근하였다 (pp.167-170). 랜킨의 말을 빌리자면 革命派는 「近代化運動에 의

해 제공된 기회와 地方有力者로서傳統的으로 누려왔던 상당한 정도의 自由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써」(p.157) 그들의 전위조직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革命派의 有力者 身分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랜킨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批判的 問題를 검토하게 한다. 그들과 農民大眾과의 關係가 그것이다. 이 문제는 그 自體 중요할 뿐 아니라 또한 많은 學者들이 이 時代의 革命派와 후기의 農民大眾의 支持에 입작한 共產主義革命派를 연결시키려 하기 때문에도 중요하다. 랜킨은 「1911年の 學生革命家들과 農民은 相異한 世界에 살았으며 어느 것도 相對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았다」(p.156)고 주장한다. 학생들은 당연히 近代的 學校와 地方自治行政機構를 찬성한 반면에 農民들은 감당할 수 없는 稅金增加의 원인으로서 자주 그들을 공격하였다. 이점과 그리고 또 다른 점에서 急進的 知識人은 「社會的 格差를 해소할 수 없었고 農民의 態度와 問題에 그 자신을 밀접하게 一致시킬 수 없었다」(p.157, p.12). 革命派들이 農民들로부터 그렇게 멀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浙江의 秘密結社를 조직화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정확하게 제기될 수 있다. 랜킨의 答은 간단하고 직선적이다. 浙江에서는 地方有力者身分과 急進主義者의 地方有力者的 態度는 결코 秘密結社를 동원할 그들의 能力에 장애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내가 이 册의 결점을 찾아야 한다면 나는 거의 전적으로 序文과 結論에 한하여 論評하겠다. 우선 前者の 경우, 랜킨은 자신의 책의 첫 「前提」로서 「辛亥革命의 목표는 近代化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近代化論의 立場을 밝혔다 (序文, p.2). 近代화의 概念을 좋아하지도 않고 理解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문제꺼리인데 그러나 랜킨이 그것을 定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문제이다. 다음 結論의 경우를 보면 랜킨은 그가 다른 急進的 知識人을 이 近代化와 一致시키고 있다. 즉 「辛亥革命의 革命家들의 궁극적인 요구는 近代化이었다… 그들은 全體로서 傳統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포기하였다」(p.228)고 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또한 그의 앞서의 革命家들에 대한 민감한 묘사와 2페이지

뒤의 그의 論議와도 모순한다. 「浪漫的 革命家」로서의 急進主義者들의 행동과 신념의 대부분은 그들의 傳統的 教育과 成長背景의 끊임없는 영향력에 힘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社會構成層의 또 다른 極에 대하여 言及함에 있어 랜킨은 찰더스 존슨(Chalmers Johnson)式으로 「日本의 侵略이 農民들의 民族主義를 일깨우기」전까지는 革命派와의 어떠한 효과적인 연결을 갖지 못하게 하였던 「農民의 個守性, 迷信, 無知」라는 문제심을 만한 論及을 하고 있다(p.231).

분명히 랜킨의 「近代的」 革命派와 「個守的」 農民이란 개념은 急進的 知識人을 大衆으로부터 분리시킨 사회적 격차에 대한 그의 인식과 분석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그것을 너무 과장하였다. 아마도 그 문제에 더욱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急進主義者가 어떠한 근거하에 농민들과의 연결을 추구하였는가를 묻는 것이라. 앞서 그는 「土地의 共同所有, 稅金의 輕減, 軍隊의 縮少, 모든 사람에 대한 충분한 食・住의 보장」이라는 陶成章의 提案을 주목하였으나 다소 거만하게 그것을 「幻想을 쫓는 傳統的 改革家의 유토피아적 目標와 農村을 평정하

려는 新王朝에 의해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計劃과의 단순한 복합물」(p.153)이라고 팽개쳐 버렸다. 이것은 다소 자나친 것처럼 여겨진다. 이 시기의 急進主義者들이 農民과 결합하려고 시도하였고 성공을 하였다면, 그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農民의 要求에 해답을 주는 약간 傳統的인 形式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 같다. 逆으로 急進主義者들이 「近代的」인 한 그들은 農民으로부터 遊離하였다.

宗教的 復古로서의 革命

이것과 유사한 主題로 에드워드 후리드만(Edward Friedman)의 《革命으로의 退行：中華革命黨》 Backward Toward Revolution: The Chinese Revolutionary Party (1974)을 들 수 있다. 후리드만은 랜킨의, 急進主義者가 農民으로부터 전적으로 遊離하였다는 견해도, 또한 農民의 保守性이 그들을 非革命的으로 만들었다는 시사도 모두 용납하지 않는다. 반대로 農民의 그 保守性과 迷信은 바로 革命의 根源이 될 수 있었다. 후리드만의 견해로는 革命은 農民에게

있어서 「復古」이며(1974:120) 「神祕로운 原點」, 「새로와진 共同體」에로 돌아가는 「回歸」(1974:121) 였다. 農民의 革命에 대한 독특한 「退行」 관념은 孫文을 중심으로 한 革命集團과의 결합을 배제하지 않았다. 「中國의 急進的 知識人은 中國의 農村民들이 그 스스로를 改造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다…… 革命은 活力과 所望을 갖고 있는 폭발적 대중인 農村民들의 현실적이며, 절실한 宗教的 欲求에 대해 궁극적 관심을 가진 急進化된 知識人們로 이루어진 새로운 共同體의 聯合이 있어야 한다」 (p.87).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중요한 핵심은 農民들의 宗教的 必要에 근거하여 그들과 연합해야 하는 急進主義者들의 必要性에 대한 후리드만의 강조이다. 이것은 土地의 共同所有, 稅金의 輕減 등등의 陶成章의 「社會的」 救濟策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려는 랜킨의 方法과 대조를 이룬다. 어찌됐던 간에 후리드만은 中華革命黨內에서 「革命으로 退行」하고 하는 「궁극적인 관심을 가진 急進化된 知識人」集團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내 생각으로는 후리드만의 册은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

의 冊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基礎的 研究와 西歐 社會科學의 最新理論과를 결합하려고 한 점에서 뛰어나다. 나는 그가 이용한 基礎的 史料가 그가 원용한 最新理論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 그의 결론은 억지인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그의 分析은 결코 허리 명령하지 않으며, (이렇게 비유하면 혹자는 언짢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후리드만이 故 조셉 레벤슨(Joseph Levenson)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자주 발견한다. 즉 비록 잘못된 점이 밝혀졌더라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리드만이 무엇에 대하여 論議하는가(나아가 무엇에 반대하여 論議하는가)를 살피는 것이고 그리고나서 그가 제시한 證據가 타당한가를 살피는 것이다.

孫文이 1913年 第2革命 失敗 후 조직한 中華革命黨은 宋教仁이 1912年에 同盟會와 몇 群少政黨으로 조직한 國民黨의 自由主義的 議會主義로부터 한걸음 후퇴한 것으로 보통 간주되어 왔다. 中華革命黨의 秘密結社方式에의 復歸와 孫個人에 대한 個人的 忠誠誓約은 특히 退行的인 것으로 지적되

어 왔다. 후리드만은 케이 에스류의 宋教仁 傳記가 그러한 바와 마찬가지로 議會民主主義가 당시 中國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革命은 「高度의 規律」(류, 1971:198)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시작한다. 후리드만은 비록 孫이 「분명히 誓約에의 집착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誓約의 상징적 효과는 철저한 군대적 規律」을 갖게 한다는合理的 目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論한다(1974:59-60). 그는 「孫文集團에 대한 신중한 學間的 批判」(p.207)은 거의 고려하지 않으며, 「스스로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表現樣式와 生活은 진지하고 동정적인 태도로 다루어져야 한다」(p.85)고 주장한다. 후리드만은 진지하고 동정적이어야 한다는 이 경고를 이 論評의 필자에게 적용할지도 모른다. 후리드만의 진지하고 동정적인 취급에 의해 孫은 초기에는 革命的 社會主義者이고(pp. 10ff.), 다음에는 包括的인 單一政黨內에서 國民的 統合을 주장하는 사람이며(pp. 30ff.), 마지막에는(中華革命黨時期)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單一指向의 宗教的 共同世界」의 創始者이다

(p.84).

이 時期의 孫을 革命的 社會主義者로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고 유용하다. 그것은 孫의 社會主義가 단순히 1920年代의 그와 소련과의 결합의 산물이었다는 생각을 수정하게 해준다. 그러나 孫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후리드만이 제시한 새로운 資料는 그 自體가 대체로 社會主義의이거나 아니면 社會主義集會에서 행한 연설로서 新聞에 실려 있는 것이다. 孫의 社會主義는 대체로 中國人 社會主義者를 고려한 것이고 또한 第2인터내셔널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눈을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것이 가능하다.

1911年的 辛亥革命 直後時期에 「西歐帝國主義에 대항하기 위한團結의 심각한 필요」(p.29)에 대한 全國民의一致된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는 후리드만의 생각은 또한 중요한 발견이다. 그것은 이 時代에 革命派와 非革命派 사이에 「영구하고도 전멸 수 없는 바다」(1971:159)가 가로 놓여 있다는 케이 에스 류의 잘못된 관념을 분명히 청산하는 것이다. 후리드만은 袁世凱의 全內閣을 國民黨에

가입시키려는 黃興의 노력(p.36)과, 1912年 9月 黃, 孫, 袁과 黎元洪이 조인하고 그에 따라 孫이 「政界를 떠나기로 동의한」政綱八條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p.35). 그러나 그는 이 행동과 한달 뒤에 孫이 「政治的으로 활발한 社會黨의指導權을 잡으려」(p.25)한 것과의 모순을 적절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선거에서의 득표활동을 위해 黨을 조직하는 宋教仁같은 西歐型의 自由主義의 政治家는 점점 더 外國人같고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같이 보였다(p.34)고 論할 때 특히 그는 근거가 허술한 것 같다. 孫, 黃, 袁과 같은 政治的 中央集權論者의 견지에서 보면 그러할지도 모르나 선거가 실시된 省에서는 宋의 黨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나는 反逆者처럼 보인 사람이 그러한 전적을 성취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후리드만의 論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고 또한 가장 골치거리인 것은 宗敎的인 立場에서 中華革命黨과 農村革命을 설명하는 것이다. 후리드만의 주장이 무엇을 찬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반대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

冊의 첫부분은 議會制에 대한 自由主義的 守護者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後半部의 공격 대상은 다음의 분별있는 脚註에 나타난다.

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自己分野 以外의 사람들이나 보다 더 진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 西歐의 學者들에게 中國의 近代性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中國人 人類學者, 考古學者, 哲學者 등은 中國社會의 宗教的 基礎를 염려무리기 하여 中國社會를 해석하여 왔다. (p. 84n) ⁽²⁾

뒤에 가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윌리암 힌튼(William Hinton)의 『翻身』 Fanshen이나 얀 미르달(Jan Myrdal)의 『中國의 持續革命』 China: The Revolution Continued과 같은 탁

월한 研究에서 조차도 발견되는 村落分析에 대한 기묘한 非宗教的 설명을 믿기는 어렵다. 나는 수세기동안 千年王國의인, 宗教의인, 呪術의인 관념에 따라 행동하여 온農村民들이 갑작스런 價值顛倒를 경험하지는 않았지 않은가 여겨진다. (pp.130 ~131)

이러한 信念의 표현이 함축하는 의미는 중요하다. 후리드만이 革命의 共產主義的 段階에까지도 적용되는 中國革命의 宗教的 概念을 적용하고 있음을 분명하다(pp.219 -224). 이것은 어떤 理論的 問題를 제기한다.

많은 中國의 革命家들 農民들이 의 宗教的 概念에 대하여 가졌던 의문을 인식하게 위해서는 華南의 農民運動에 대한 毛澤東의 報告나 또는 절찬받고 있는 魯迅의 作品

(2) 아주 최근(대체로 西洋人们인) 人類學者は 中國의 宗教를 더욱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성과는 宗教가 革命의 核心이라는 후리드만의 논의를 필연적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中國人の 神은 「中國의 官僚의 具體像」으로서의 官僚의 階層體係로 파악되었다는 아서 울프(Arthur P. Wolf)의 논의를 주목하여 보자. 「民衆에 대한 長期間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中國의 專制王朝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유능한 政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王朝는 스스로를 담은 宗教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民衆의 想像力を 장악하였음은 그 專制王朝가 그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한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것은 中國의 革命家가 佛教나 基督教와 같은 外來宗教의 概念과 象徵에 의하여 그들의 運動을 자주 조직하였던 理由도 되리라. 土着神은 既存體制의 一部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反對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울프, 1974 : 145).

을 훑어보기만 하면 된다. 더우기 후리드만 자신도 알고 있듯이 中華革命黨式의 革命은 적어도 共產主義로 통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파시즘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이니 그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좁은 에리트層과 그 使命感, 어떤 폭력도 즐겨 이용하려는 태도, 그리고 既成 에리뜨들로부터의 매력등을 가진 中華革命黨은 억압적인 右翼 또는 파시스트 獨裁로 갈 수 있는 커다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p. 214).

組織의 宗教的 性格에 관한 후리드만의 論議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中華革命黨의 한 구성원은 「中華革命黨의 理論家」이며 후에 國民黨 右派의 指導者가 된 戴季陶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잠재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후리드만의 革命理論과 파시스트 概念과의 類似性은 그저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후리드만은 經濟, 階級, 또는 社會構造 대신에 宗教 또는 心靈現象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파시스트 革命과 進步主義者를 분석적으로 구별해 낼 수가 없다. 中華革命黨의 革命이 그 모든 파시스트로의 잠재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힌든

이나 미르달이 기술하는 共產主義 革命과(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가는 그 自身의 마음에서도 결코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理論과 理念의 차원에서의 反論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그의 理論이 事實에 부합하는가를 질문할 일이 남아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부합하리라. 「不可能이라는 말을 부인하는 革命家들이 私心이 없는 軍人이 되고자 대담하게 그 자신을 再形成하는 면에는 精神的인 면이 있었다(p.85). 그리고 빈곤한 農民들이 土匪結社에 가입하고 그 속에서 「 더욱 보편적인 家族制의 宗教」(p.136)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革命過程의 이러한 宗教的 概念화의 증거를 行動, 言語 또는 象徵에서 찾아보기 위하여 白狼으로 알려진 北部 中國의 土匪結社에 대한 후리드만의 멋진 서술을 검증해 보자. 이것은 그의 方法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다. 우리는 우선 1913年 黃興의 南京포기에 대해 白狼이 관심을 갖음으로써 「政治的 傾向」을 나타내는 것을 알게된다. 다음 해에 이 白狼은 清朝의 老官僚이며 당시 革命派와 협력하고 있던 峙

春煊을 大總統으로 추대하는 〈政治革命〉이란 宣言書를 발행하고 있다(p.145). 후리드만은 또한 黃興과 日本의 公主가 결혼하였다는 白狼結社內에 서의 소문을 기사로 한 〈北華接報〉(North China Herald)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후리드만은 「以前에 農村定住民이었던 그들은… 이 결합이 日本을 家族의 一員으로 만든다고 이해하였다」(p.146)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리고나서 이어 「中國에서의 家族制의 危機」라는 긴 論議를 전개하고 또한 「내 생각으로는 農民들은 革命을 家族을 再組識하는 것으로 경험하였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p.147). 그러나 이 모든 것은 日本公主와의 결혼이란 한 소문을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지나친 추론인 듯 싶다. 후리드만은 白狼黨과 官兵사이에 존재한 共生的 關係와 다시 西安공격을 하기로 한 白狼의 결정에 대해 길게 논의하고나서이 土匪의 두목이陝西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漢朝의 農民出身 創業者인 劉邦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데 대한 서술을 하고 있다(p.156). 劉邦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같은 것은 中國의 어느 地域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에게는 생

각되지만 후리드만에게 있어 그것은 陝西지역에 독특한 「民衆神話」의 증거이며 「각 지역은 그 자신의 독특한 존재조건에 따라 革命을 경험한다」(p.157)는 주장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린이 놀이(그가 인용한 문헌에는 그에 대한 언급은 없다)에 대한 논의까지 하게 하였는데, 이 어린이 놀이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 그의 말을 그대로 빌린다면 「나는 쏘로(Thoreau)나 애더슨(Emerson)을 끌어내어 毛澤東에 관한 脚註로 삼」았던(p.158)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적인 教訓劇을 中國人 이야기꾼의 기능과 같게 사용한 福建의 宣教師들을 가지고 그가 農村의 革命을 「家族制的 宗教的 危機에 대한 반응이란 입장」(p.159)에서 다룬데 대한 「독자적인 歷史的 確證」으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리드만은 白狼의 「주된 공현」은 清朝의 前官僚로서의 袁世凱 반대를 겨냥한 그 「種族的 民族主義者」로서의 공현이었다는 증거를 인용하면서(p.160) 白狼의 몰락에 대한 서술을 끝맺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一黨의 「半政治的 性格」에 대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結社의 構成員의 祕密結社的 信仰의 宗教的 特

性」에 대한 어떤 문헌기록도 인용 함이 없이 언급하고 있다(p.162).

후리드만은 확실히 中國에서의 農村革命에 대한 진기하고도 도전적인 접근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中國의 革命經驗에서의 종교적인 言語, 종교적인 象徵에 대해 우리 모두의 귀를 조율시키는 유용한 도전이다. 아마도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하리라. 그러나 나는 우리가 후리드만이 여기에 제시한 것 이상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의도적인 상상에 의해서만 胚胎된 理論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紳士：進步的인가， 保守的인가？

6개의 著述을 검토하고 난 지금, 우리는 辛亥革命의 原因과 意味에 대하여 무엇을 이해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 답은 「거의 없다」는 것이 아닐가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册들은 모두 革命家에 대한 것이고 랜킨이 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革命과 革命家는 별도의 것이 있기 때문이다. 革命家들에 대한 이러한 學問的 관심의 집중은 이해할 만하다. 우선 革命家가 革命을 성취하였다

는 舊來의 通說은 펼쳐버리기 힘들다. 두번 째로 革命家들이 그 자신의 時代에는 失敗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이들 失敗者에게서 後期의 좀더 성공적인 中國革命家의 起原을 발견한다. 랜킨과, 자신의 研究를 「失敗者에 대한 이야기」(1964:3)라고 한 후리드만은 이 벌주에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솔직하고, 개방적이고, 말로 표현을 한 革命家가 清末 政治와 社會의 복잡한 内部動態보다는 研究하기에 더 용이하고도 흥미있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中國에서의 事件에 대한 그러한 研究는 진행중이다. 특히 어니스트 피 영(Ernest P. Young)의 袁世凱와 그 總統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研究는 이 복잡한 人物과 時代에 대해 곧 중요한 해명을 해줄 것이다. 또한, 學位論文으로서 아직 公刊은 안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名省에 관한 研究가 있다. 채알스 허단 헤드케(Charles Herman Hedke, 베를리)의 四川省, 윌리암 알 존슨(William R. Johnson, 워싱턴)의 雲南, 貴州省, 사缪엘 쿠퍼(Samuel Kupper, 미시간)의 江西省, 케이쓰 스코파(Keith Schoppa, 미시간)의 浙江省, 도날드 싱글레어 씨튼(Donald

Sinclair Sutton, 캠브릿지)의 雲南省에 대한 研究가 그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종내는 수정되어 책으로 出版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책이 나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革命의 社會的 原動力에 대한 이해를 많이 진전시키는 많은 論文을 갖고 있다. 그 상당수는 메어리 씨赖特(Mary C. Wright)가 編한 《革命하는 中國：첫 段階，1900-1913》 *China in Revolution: The First Phase, 1900-1913*(1968)에 모여져 있다.

이 두툼한 책의 各 寄稿論文에 대해 要約하고 分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 전체를 통하여 革命에 대한 우리의 理解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主題와 論爭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책 전체가 대개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張朋園의 「立憲派」 The Constitutionalists⁽³⁾라는 論文이 우리의 관심을 海外의 革命派로부터 國內의 立憲主義 改革派에게도 들리게 한다. 張은 (立憲君主制로의 移行을 위한 清의 점진적 계획을 참지 못

한) 紳士出身의 改革家들이 共和國의 設立에 있어 행한 중요한 寄與를 例證할 수 있었다. 그는 諮議局 議員들이 清에 獨立하여 그들各自의 省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서 행한 중요한 역활과 新革命政府內에서의 立憲派의 우월한 위치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論難이 거의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몇 개의 해석상의 난점이 이러한 革命에서의 紳士層改革家의 중요한 역활에 대한 認織에서 생기게 된다. 紳士層은 進步的이었으며 革命은 發展的이었는가? 또는 紳士層은 保守的이었으며 革命은 退行的이었는가? 이것은 실제로 革命이었으며, (라이트의 책 제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中國의 보다 큰 革命的 經驗의 「첫 段階」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회복가능한 社會的 價值가 결여한 西歐의 立憲主義라는 外觀에 의해 가리워진 王朝沒落의 단순한 한 例이었는가?

市古雷三과 메어리 라이트는 이 論爭에서 主役으로 나타난다. 市古는 「地方 諮議局의 자리를 차지

(3) 張의 論文은 中國語로 된 좀더 큰 單行本 《立憲派與辛亥革命》(臺北, 1969)의 縮少임을 밝혀둔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張玉法의 《清季의 立憲團體》(臺北, 1971)에 좀더 고찰되어 있다.

하고 있었던 紳士들은 保守主義者이며 西歐化에 전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自己保存을 위하여 立憲改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p.302)고 論한다. 그에게 있어 辛亥革命은 단순한 「王朝革命이며…… 革命前後의 時期間에 커다란 社會的・經濟的 變化를 간취할 수 없다」(p.313). 데어리 라이트는 반대결해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역사상에서 1900年의 中國과 같은 劇的인 분수령을 이루는 해는 거의 없다」(p.1)고 革命 前 10年은 民族主義와 改革을 위한 活力에 찬 노력이 主導하였던 「새로운 時代…… 진실로 새로운 世界」(p.2)이다. 「紳士는 時代의主流로부터 이탈하여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地方自治機構의 指導者였으며 省議會(諮詢局)를 支配하였다…… 이러한 組織은 당시의 커다란 舉國的 問題, 즉 西歐의 侵略에 대한 抵抗, 國內的 社會改革, 立憲政府 등에 관심을 집중하였음을 記錄에서 볼 수 있다」(pp.39-40).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論爭은 動因에 관한 것이다(그러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市古는 紳士層改革派가 自己保存의 本能에

의해 움직였다고 파악한 반면에 라이트는 立憲的 改革을 통해 中國을 강화하려는 民族主義의 必要에 호응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市古는 紳士의 힘의 강원성이 1949年에까지 미친다고 파악한 반면에 (pp.308-309) 라이트는 1900年 이후의 中國은 青年, 女性, 軍人, 海外僑胞 工業勞動者の 역할이 확대된 「새로운 世界」,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世界」로 파악하였다 (pp.30-38). 또한 부분적으로 그 論爭은 清朝의 改革의 生育可能性에 관한 것이었다. 市古는 知識人들의 改革에 대한 民衆의 反對를 강조하고 (p.302) 「清末의 社會的秩序는 극도로 불안하였다」(p.312)고 論한다. 反面 라이트는 農民의 抵抗을 과소평가하고 (p.29) 「결국 中國은 (만일 長期間 지속하였다고 한다면) 君主制下에서 성공적인 自強을 이룬 日本의 模範을 따랐을지도 모른다」(p.26)고 論한다. 만일 中國이 「弱하고 두려움 많은」攝政王대신에 「想像力이 풍부한 君主」를 가졌더라면 中國은 革命의 罷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다는 것이다(p.29).

市古—라이트 論爭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學者들은 明示的으로든 含蓄的

으로든 그 어느 한쪽과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때어리 라이트족의 가장 유력한 支持는 마크 엘빈(Mark Elvin)의 中國의 최초의 西歐型 地方自治行政機構이며 분명히 가장 성공적인 例의 하나인 上海의 自治公所(市參事會)에 대한 研究의 결론으로부터 나온다. 엘빈은 中國의 知識人的 적응력과 그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 清朝의 失敗를 강조한다.

變化는 필연적이고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清末의 傳統的 예리뜨들이 일탈적으로 上海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創造力이 있었더라면 평화로운變化를 위한 틀을 급속히 파괴하였던 革命은 재앙이었다. 1910年과 1911年에 清廷에 立憲運動을 조절할 수 있는 知性이나 융통성을 가진 政治家가 한 둘 있었더라면 表面的인 革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고찰하고 있는 自治公所가 實例로서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政治的秩序는 쉽게 일소할 수 없는 기초를 닦을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엘빈, 1974:261-262)

여기에서 革命과는 다른 접친적인 代案을 憧憬하고 있음을 더 이상의 論及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명백하다. 라이트족의 일

반적인 입장에 대한 또 다른 支持는 그의 弟子인 로저 데 휘지(Roger des Forges)의 蒙古出身地方行政官이며 改革家인 사람에 대한 研究인 《錫良과 中國의 民國革命》 *Hsi-liang and the Chinese National Revolution*(1973)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솔직히 데 휘지의 中心主題가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전체를 통하여 锡良을 「보다 거대한 國民的 革命에 대한 支持」를 하려는 政策을 가진 「急進主義者」로 묘사하기를 고집한다(1973:85). 그는 一面으로는 「上層階級 사람에게 平等 社會 指向의 革命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 애국자이며 「人民主義者」였다(p. 176). 그려한 主張을 함으로써 데 휘지는 심한 言語內容의 變造를 범하지 않았나 한다. 왜냐하면 锡良은 사실상(서술이 나타내 주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패하지는 않았으나 반면에 끝까지 王朝를 지지한 어느쪽이냐하면 평범한 清末의 改革家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그의 同時代人과 비교해야 한다면 그 상대는 보통 武昌起義를 막지 못한 것으로 비난을 받는 滿洲人 瑞澂이라. 騷擾의 첫 신호에 自身의 직책을 버리

고 도피했던 無能者로서의 瑞澂의 像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腐敗의 除去, 行政의 合理化, 帝國主義에의 抵抗에 관심을 가진 정력적인 改革家이었다. 錫良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軍事的 改革에의 努力, 西洋人의 鎮山 採掘計劃에 대한 抵抗, 教育과 立憲改革의 推進, 악편의 吸煙과 栽培의 억압 등에 대한 데 희지의 記述은 당시의 대부분의 省官僚가 행하고 있던 것에 대한 記述이다. 이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유용한 책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錫良과 같은 人物을 가진 王朝官僚體系는 紳士들과 마찬가지로 改革方案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의깊게 읽는다면 대부분의 改革方案이 불충분 한財政과 帝國主義者の 壓力으로 결실맺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改革에 경주한 정력과 또한 정력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증거를 갖게 된다.

라이트의 清朝의 改革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에 대한 이러한 支持者에 대하여 몇 學者는 市古족에 연결하고 있다. 데비드 럭(David Buck)은 「濟南의 教育近代化」 Educational Modernization in Tsinan

라는 그의研究에서 「紳士는 權力を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어려운 政治的 色彩도 감수함으로써 清末과 民國初의 挑戰에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여 市古의 위치를 찬성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Buck, 1974:211). 로버트 칼(Robert Kapp)은 1911年 豐田 이전부터 시작하였던 傳統的인 지방의 下層官僚知識人의 變型의 일부로서 나타난 四川의 「低質紳士(劣紳)」 民衆防衛組織(團練)의 두목 「鄉村의 疊匪」 등을 論한다(Kapp, 1974:169). 여기에서 그는 데어리 라이트보다 市古의 편에 편이 가까운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인상깊은 연구로는 필립 쿤(Philip Kuhn)의 것이 있는데 19세기 중국의 地方의 防衛組織化에 대한 그의 훌륭한 研究의 결론은 「地方自治」는 保守的인 地方에 리뜨가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기회이었다」라는 것으로 市古의 論旨를 보강해 주는 것이었다(1970:217n).

그러나 쿤은 市古와 라이트間의 격차를 좁히려는 假說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 그는 「全國的, 省 및 鄉鎮單位」로 知識人을 구별할 필요를 논하고 近代化는 知識人 내부에 분열을 만들어 놓았거나 아니면 확대하였다고 말하였다(p.

217n). 이리하여 市古가 말하는 鄉村에리뜨는 영향력의 확장에만 관심을 가진 保守主義者로 구성될 수 있고, 反面에 라이트가 다루는 全國的, 省單位의 知識人은 西歐型의 都市的近代化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유용한 가설로 여겨진다. 그것은 「市單位의 福祉國家」(엘빈, 1974:259)라는 上海自治公所가 설정한 목표에 참여하는 「全國的 紳士層民主主義의 體制」(p.250)라는 엘빈의 가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上海의 商人 및 紳士層에 관한 업적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이로서 農村地域에서는 父母들이 그들의 子息을 非合法的인, 秘密의 傳統的學校에 보내기를 택함으로써 官立學校가 폐쇄되면서도 都市에서는 教育近代화가 이루어 진다는 벽의 研究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 벽이 말한 바와같이 「都市와 農村의 水準間에는 큰 격차」(1974:211)가 존재하였다.

中國歷史의 이 時代에 관한 우리의 研究의 다음 段階는 知識人內部의 分化(사실은 統治階級內의一部)에 대한 퀸의 가설에 집중적으로 관계된다. 그러나 이러한 接近方法이 야기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그 분열은, 實態가 어떠하였는가를 극히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分化를 곧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니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鄉村知識人的 관심은 어느 정도의 (學校, 警察, 自治政府議會 등) 制度의近代化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近代化에 대한 都市 및 省 知識人的 관심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야망을 꼭 포기하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全國, 省 또는 鄉鎮單位에리뜨 사이의 相異性은 참여와 主導權의 정도의 차이가 된다. 나는 立憲運動, 地方自治와 같은 改革에의 주도권은 帝國主義者の 中國分割의 위협이 좀더 현저하고 현실적인 都市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싶다. 주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都市에리뜨는 地方的, 國家的 政治制度를 西歐化함으로써 中國과 그自身 모두를 강화하려고 추구하였다. 한편 縣省(縣의 首邑)과 고을의 鄉村에리뜨들은 國家的 危機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地方自治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새로운 政治形態에서 鄉村에서의 政治的 實權을 장악하고 制度化할 수 있는 理想의 機會를 갖게 된 것이다.

두번 째 문제는 改革에 대한 民

衆의 反應에 관한 것이다. 이 문
제에 관해서는 나는 清朝의 改革
에 대한 民衆의 反對와 暴力의 심
각성을 강調하는 市古 쪽을 분명
히 평든다. 民衆의 이 反對運動의
정도와 깊이를 고려하면 라이트와
엘빈의 改革의 成功의 기회에 대
한 낙관적인 칭송은 의문의 여지
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반대는 주된 都市中心地밖에서 나
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그 반대는 改革自
體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주로 그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鄉紳이 수행한
기단적인 改革에 대한 것인가?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改革方案의
弱體性은 計劃보다는 實施에 관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덜 심각하
다. 반면에 민중이 改革을 비용이
많이 들고, 文化的으로 異質的이
며, 地方自治에서 자기들의 實權
을 制度化하며, 近代式 學校에서
자기들의 자식을 교육시키며, 近
代式 警察도 자기들의 位置를 보
호하는 에리뜨들만을 利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면 改革의 弱體
性은 그 計劃自體에 在한다. 나
는 두가지 형태의 反對 모두가 일
어나지 않았다 하나, 우리는 改革
과 改革家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위하여 어느것이 더 중요하며, 이
러한 反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
견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地域
研究를 하여야만 한다.

初期 브르조아지 ?

군에 의한 知識人의 分代의 다
른 한 쪽, 즉 주요 都市中心地에
서의 省, 또는 全國的 單位의 知
識人에게로 돌아가 우리는 어떠한
社會的範疇가 이 집단을 가장 잘
特牲지우는가를 검토해야만 한다.
이 경우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 계급의 명확성의
정도이다. 마리-끌레르 베르제르
(Marie-Claire Bergère)는 이 문제
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어 「지난
세기 말에 商業資本主義者라는 새
로운 계급이 中國에 나타났다」(베
르제르, 1968:237)라고 기술한다.
이러한 새로운 계급은 어느 정도
로 뚜렷한 것인가? 베르제르는
한편에서는 「브르조아는 결속과
그 자체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
기 시작했다」(p.239)고 論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論한
다.

1870年以後와 1905年 科舉制의 废
止以後, 滿洲政府의 쇠퇴에 따라 社

會的 位置가 뚜렷해지지 않게 된(科舉學位의 賣出(捐納) 이 증가되게 되었다) 紳士와, 아직 분명한 社會的地位를 획득하지 못했던 初期 브르조아는 「紳商」階級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階層은 土地所有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나 그러나 近代的企業의 투자로부터 利益을 얻어내는 기회를 갖는 것을 꺼리지 아니한 각지방의 유력인사로 구성되었다(p. 240).

그녀는 나아가 內地에는 융합체인 紳商層(나는 그것을 階級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주저한다)이 우세하는 경향이 있으나 沿海地域을 따라서는 브르조아가 뚜렷한 계급으로서 보다 분명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論한다(pp.240-241). 분명히 에드워드 로즈(Edward Rhoads)의 「廣東의 商人協會, 1895-1911」 Merchant Associations in Canton, 1895-1911 (1974:94-117)라는 研究는 紳士들과는 구별되는 利益과 壓度, 심지어 그들과 경쟁상태에 있기까지 한 商人階級이 있었다는 생각을 강력히 支持한다.

1911年 以前의 時期에는 民族主義, 立憲論 등의 「브르조아 理念」이 유행하였으며(베르제르, 1968: 242-244), 브르조아지는 外國商品의 배척운동과 議會政治의 선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pp. 251-257). 그러나 베르제르는 마침내 革命이 일어났을 때에는 브르조아는 主導役割을 하기에는 너무 약했었다고 선두력있게 論한다. 「省單位 브르조아들의 협약함은 특히 혈족하였다. 그들은 매우 소수였으며 또한 紳士層과 거의 식별되지 않아 그들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다」(p. 279). 그러므로 革命은 「브르조아 革命」은 아니었다. 「브르조아는 아직 階級으로서의 완전한 힘을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補助的인 것일 수 밖에 없었다」(p.295).

대체로 나는 베르제르의 결론이 타당하고 설명이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地域의 差異에 관심을 두어야한다는 그의 충고는 잘 받아들여야 한다. 革命 연구의 대상이 된 모든 地域에서 예리뜨 集團의 참가의 양상은 相異하게 나타난다. 廣東에서는 紳士와 商人은 각각 獨自的인 集團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서 가장 商業化된 都市인 上海에서는 兩者的結合은 잘 되었다. 그러나 兩者的聯合에서의 브르조아의 역할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보다 커다. 內地에서는 商人과 紳士의 연합에 있어 도시

의 紳士가 주도역할을 하였음을 분명하다. 中國의 거대한 상업중심지로부터 멀어져감에 따라 北部에서는 官僚와 紳士의支配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같은 손쉬운 地域的類型化가 1911年의 中國에리뜨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결코 믿어서는 안된다. 성급한 결론으로 비약하지 않기 위해서는 辛亥革命에 관하여 출판된 최초의 省研究인 에드워드 제이 앤 로즈(Edward J.M. Rhoads)의 《中國의 民國革命：廣東의 경우》 *China's Republican Revolution: The Case, of Kwangtung(1975)* 가 겪은 곤란한 문제들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비록 그는 찰더스 존슨의 「不均衡된 社會體制」와 제임스 씨 데이비스(James C.Davies)의 「增大된 期待의 革命」(나 자신은 거의 共感하지 않는 다소 心理學的인 接近을 한 두 研究이다)을 포함하는 理論的 틀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한 省에서의 民族主義, 改革, 革命에 대한 중요한 記述을 하고 있다. 그는 이 時代에 「더욱 强奪의으로 되었던」(1975:29), 그리고 「中國의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서」(p.267) 民族主義와 改革을 자극하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하였던 帝國主義의 危脅을 강조한다(pp.29-33, 59-65). 教育改革의 地方에서의 施行過程, 對美·對日商品排斥運動, 더욱 더 급진적이 되어간 新로운 言論의 영향, 諧議局과 地方自治機構의 활동, 紳士가 主導하는 改革에 대한 農民의 反應 등의 그의 記述은 탁월하며 아주 확실하고 상세한 地域研究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改革運動, 革命運動에 있어서의 政治的 에리뜨의 성격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 記述과 分析을 정리하여 읽어본다면 우리는 다소 실망하게 될 것이다.

대체로 로즈는 革命으로 紳士는 장화되었다는 市古의 見解를 지지한다. 清朝의 改革은 「大衆, 특히 農村大衆을 회생시키고 地方 紳士의 實權을 증가시키는데」(p.153) 역할하였다. 비록 革命直前의 「反紳士 抗稅鬪爭」과 그외의 民衆主要是 「廣東의 農村에 無政府 狀態」(p.213)를 갖어왔지만 反對를 진압하려고 한 紳士는 革命으로 「아마도 前보다 더욱 强해지 고… … 廣東에서조차도 가장 유력한 社會集團」(p.258)이 되었다. 로즈는 「全國的으로 볼 때 革命의 계승자는 舊王朝의 에리뜨, 學人官僚이 있다」(p.234)고 記述한다.

이것은 모두 좋다고 여기나 로즈는 또한 中國社會와 그 紳士層이 이 時代에 變化해가는 양식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가 改革이 「中國社會의 近本的인 變革을 낳았다」(p.50)고 기술할 때, 그는 市古宙三보다는 훨씬 메어리 라이트에 가까운 것 같다. 1905年 이후 教育制度의 改革이 에티뜨의 充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로즈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科舉制의 폐지는 紳士層을 일소시키지 않았고 「新紳士」라는 색다른 副次的 類型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資格要件을 넣게한 데 불과하다. 뚜렷한 社會集團으로서의 學人紳士가 사라진 것은 文吏와 學校間의 모든 연결이 단절되었던 辛亥革命時期부터 비로소 시작된다(p.75).

이 기술은 평가하기에 다소 곤란하다. 아마도 사라진 「學人紳士」와 革命의 계승자인 「學人官僚」와 革命後의 社會의 主導的 集團인 「紳士」間에는 구별이 있으리라. 그러나 적어도 내 경우는 그 구별이 무엇인가를 서술하는데 곤혹을 느낀다.

商人과 브르조아로 옮겨가면 그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우선 브르

조아의 獨自性이란 문제가 있다. 紳士들의 自治研究會와 경쟁하여 존재한 그들 자신의 粵(廣東)商自治會를 가진 廣東商人은 비교적 獨自의이었고, 1907~1909年的 民族主義者 결동의 時期에는 특히 활발하였으며(pp.148-152), 革命에서는 매우 영향력이 커딘 것 (pp.222-230)으로 나타난다. 以前에 쓴 한 論文에서 로즈는 商人們이 1911年에는 革命을 支持하고 2年後에는 그 支持를 철회함으로써 「廣東에서의 革命의 運命을 결정하였다」(1974:117)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나는 廣東에서 라 할지라도 紳士와 商人們이 로즈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확실히 구별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진다. 예를 들어 商人們을 포함하는 몇개의 중요한 民族主義者의 集會가 儒教祀堂에서 개최되었다 (pp.141, 144)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 祀堂은 물론 紳士居住地域인 廣州의 東部에 있었다(로즈, 1974:101-102). (또한 武昌起義 廣東獨立을 하기 위한 복잡한 책략에서 활약한 가장 현저한 「紳士」活動家는 進士이며 또한 粵商自治會의 指導者이었던 江孔殷이었다는 것(로즈, 1975:216ff.)은 주목할만하다. 로즈는 또한 總商會에

속한 「社會的으로 저명한 商人. 紳商」(p.80)에 대하여도 言及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고, 自意識을 가진 브르조아 계급이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가를 인식하는 것은 극도로 곤란하다.

둘째로, 商人이 상당한 정도로 獨自의인 政治權力으로서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1911~1913年 時期의 그들의 行動에서 특히 그러하다. 당시의 그들의 행동은 어느 정도로 辛亥革命이 「브르조아 革命」이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1911年 10~11月에 君主制와 共和制 사이의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紳士와 總督이 省自治를 위한 계획을 진행할 때, 商人們은 民國革命을 강조하였다. 로즈는 이 행동을 「紳士가 社會를 傳統的으로支配해온 것」에 대항하고 「비록 階級的起源은 아니라 하더라도 理念적으로는 ‘브르조아’인 革命派」(p.229)에 찬동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 記述로 보면 商人们은, 紳士의 애매한 태도로 因하여 廣州가 士匪들과, 農

村으로 부터 省都로 移動하고 있었던 革命派가 支援하는 「農民軍」의 희생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 같이 생각된다(pp.222-225). 그러므로 그들의 동기는 진보적인 브르조아의 그것이 보다는 낭패한 돈 많은 에리드의 그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1912~1913年, 同盟會 主導의 새로운 革命體制는 公衆保健, 公共事業, 아편과 도박의 금지, 法的, 社會的, 經濟的, 宗教的(佛教, 道教의 反對와 基督教贊成의)改革 등 일련의 인상적인改革을 시도하였는데, 로즈는 그것을 「분명히 ‘브르조아’적」(p.258)이며 「商人의 바램에 부응하는 都市的인 政治的, 文化的 革命」(p.259)으로 기술한다. 그러나改革에 드는 비용은 단대하였고 인플레이션을 멈추게 하려는 생각을 가진 廣東商人은 주로 재정적인 부담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므로 「財政的 부담에 따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政府는 그改革案중 몇을 포기하여야 했다」(p.241). 즉 商人们은 「브르조아」改革을 방해한 것이다.⁽⁴⁾

(4) 또한 애드와드 후리드만의 「革命인가, 아니면 단순한 또 하나의 流血循環인가? 汕頭와 辛亥革命」 Revolution or Just Another Bloody Cycle: Swatow and the 1911 Revolution을 보라. 이것은 汕頭商人을 「法과 秩序를 믿는 선

이러한 로즈의 叙述의 명백히

모순하는 부분을 한데 짜맞춤에 있어서 나는 이 책의 分析的인 正確性을 따지는 것보다는 1911年代에 활동한 다양한 에리뜨 階級과 階層에 대해 앞뒤가 맞고 단순한 記述과 分析을 발전시키려고 할 갖게 때 마련인 지극히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로즈의 책에는 심각한 矛盾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그社會에 內在하는 矛盾을 반영할 뿐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社會的範疇는 중복하고, 어느 社會集團의 구성원은 항상 기대된 대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商人們은 「브르조아」로 행동하지 않으며 紳士는 자신을 「商人」이라고 부르며 總商會에 참여하였다. 로즈는 廣東의 다양한 社會政治的集團의 복잡성을 전달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그러나 廣東地域內의 문제만 다룰 때나 또한 廣東과 他地域과를 比較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分析上의 問題가 남아 있다.

大衆

여기에서 讀者는 異議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大衆은 어디에 있었는가? 民衆은 革命에 전연 참여하지 않았었는가? 이것은 모두 (保守的이든 進步의이든) 紳士와 (브르조아이든 紳商이든) 商人과 新軍과, 또한 아마도 「새로운 知的인 에리뜨」(왜냐하면 케이 에스류는 이 「자기 성격을 스스로 의식한 계급의 사람」이라는 것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1:33, 34)에 의해 主導된 에리뜨의 革命이었는가? 우리는 革命에서의 革命派의 역할을 과소평가 해으로써 民衆的 革命勢力과 접촉을 가진 유일한 집단을 제거한 것인가? 辛亥革命을 에리뜨의 革命으로 보는 관점에 가장 심각하게 도전한 者는 존 러스트(John Lust)이다. 그는 「여러 資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로부터의 革命은 新軍將校와 讀書人層의 엘리트주의로부터 나온 誇張이다」(러스트, 1972:195)라고 論한다. 러스트의

량한 市民」(1970:290)이며, 英國과 美國의 帝國主義라는 형태의 「外勢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승리한」(p.299) 者로 다루고 있다. 후리드만은 이러한 商人的 이탈로 「進步의인 改革은 廣東政府가 實權을 잃기 훨씬 전에 끝났다」(p.306)는 것을 주목한다.

「秘密結社，民衆運動과 辛亥革命」이란 중요한 論文은 革命時代에 「아래로부터의 運動」(p.165)의 중요성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유력한 論議를 전개한다.

리스트의 論議는 이 時代에 관한 日本人과 맑시스트의 歷史에共通되며, 清朝의 改革에 대한 낙관적인 라이트—엘빈의 견해와는 반대되는 요소로 시작한다. 그는 中國이 이 時代에 인구과잉, 세금의 증가, 관개시설과 公公用食糧備蓄制의 소홀, 紳士가 「官僚와 民衆間의 중개역할을 하던 것을 팽개치고 都市로 빠져나간 일」(p. 166)들에 의해 야기된 「심오한 社會·經濟的 危機」에 빠져있다고 본다. 이 危機는 清朝의 改革, 즉 「近代化의 新政策」에 의해 악화되었는데 그러한 改革策들은 下層階級에는 새로운 세금부담을, 紳士에게는 그들의 行政的·經濟的 位置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주는 것 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족동과 鄉村의 소요가 다반사같이 되었다(p. 167). 「결국 體制의 權威와 自信感은 둘 다 손상되었다」(p.170).

이러한 社會的 關係에서 「急進主義와 舊來의 족동과의 체한된 교합을 뜻하는 中國的 形態의 人民主義가 대체로 任俠傳統의 「反

儒教主義」를 근간으로서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p.170). 여기에서 리스트는 메어리 랜킨이 말하는 浙江에서 急進的 知識人이 秘密結社와 맷은 種類와 같은 연합을 말하고 있음을 명백하다. 그러나 강조하는 바는 약간 다르다. 랜킨은 紳士의 秘密結社에 대한 主導權과 조정을 강조한다. 한편, 리스트는 「中國의 無識者層이나 半識者層의 政治狀況을 판단할 수 있는 能力を 과소평가해서는」(p.170). 안된다고 주의하고 있다. 랜킨은 急進的 知識人을 民衆的 要素로부터 분리시켰던 社會的 文化的 格差를 주목하는 反面, 리스트는 (비록 胡漢民과 같은 同盟會 指導者에게서 「브르죠아지의 舊體制로부터의 이탈과 그리하여 舊式의 민중운동과도 손을 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p.172)을 인정하지만) 急進的 人民主義를 근간으로하여 형성된 同盟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들, 즉 秘密結社에 대한 에리뜨의支配의 程度, 急進的 에리뜨와 民衆的 要素 사이의 文化的 政治的 同化의 程度 등은 辛亥革命에 관한 다음 단계의 研究에 어려운 課題로 남을 것이다. 나 자신의 예상은 랜킨 자신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1971:139) 秘密

結社에 대한 紳士의 支配는 中國의 다른 어느 地域보다 浙江에서 현저했던 반면에, 秘密結社가 「民衆」의 革命勢力を 代表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용이하게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結社는 地方의 有力人士에 의해 지배되었던 반면에 다른 것들(특히 中國中部의 哥老會)은 대체로 흔히 傭兵처럼 간주되는 입장에서 革命活動에 참여한 江河流域의 無產流民의 要素로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政治的 抗據에 참여한 下層階級의 秘密結社員들은 책동자인 에리뜨들의 수동적인 알잡이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참여로부터 어떤 잠재적인 政治的・經濟的利益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秘密結社의 民衆的 要素가 政治的 參與를 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啓導함에 리스트의 관점은 정확한 것이다.

「急進的 人民主義」를 근간으로 하는 에리뜨一大衆의 연합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공통의 任俠的傳統을 바탕으로 한 이 연합은 革命起義時期에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리스트는 이 용어를 湖南의 焦達峯의 革命政府와 貴州의 自治會에도 적용한다. 가장 유력

한 「人民主義者」와의 결합은 內陸의 보다 더 傳統的이고 덜 「브르조아」의 革命家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廣州에서는 胡漢民의 西歐化된 都市政權이 주변의 「人民軍」과 곧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11年的 湖南・貴州體制는 너무나 빨리 더욱 個守的인 세력에 의해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急進的 人民主義」가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알기는 어렵다.

이들 여러政權의 「急進的 人民主義者」의 性格의 生存能力에 대한 나의 의문은 1909~1910年에 있었던 改革에 반대한 폭동과 1911年的 起義의 어떤 樣相을 연결지으려는 리스트의 시도를 검토함으로서 아주 훌륭히 설명될 수 있다. 그는 「劣悪한 紳士」와 官僚가 그들의 利己的 利益을 위하여 改革을 조종하였기 때문에 폭동대상이 되었던 1910년의 萊陽과 山東에서의 反改革暴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가 그것을 「階級的 分極化에 內在하는 暴力의 表現」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리스트, 1972:169). 그리고 그는 「萊陽暴動의 논리가 1911年的 四川에서極點에 達하였다」고 논하는데, 당

시 四川에서는 紳士가 主導하는 保路會가(同盟會員으로 부터의 분명하지 않은 정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清朝의 鐵道國有化政策과 外國借款에 반대하기 위하여 秘密結社를 동원하였다(p.187). 이리하여 1911年에 이르면 「階級間의 分極化」는 階級間의 「急進的 人民主義者」의인(또한 「非急進的」이기도 한) 聯合으로 된다고 러스트는 본다. 이것은 중요한 변모인데 나는 솔직하게 이 연합의 발전 가능성을 의심한다. 「急進的 人民主義者」의 聯合은 러스트가 보기에 그들을 암도하였던 保守的인 地主—軍閥勢力에 의해 위협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內部的 矛盾에 의해서도 위협받았다. 결국 「急進的 人民主義者」는 近代式 學校, 新軍, 地方自治政府, 近代式警察, 등등의 대부분의 改革에 완전히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1911年 以前의 時期에 民衆 쪽동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던 비용이 많이 들고 애리뜨를 위한 改革이었다.

아마도 우리는 윈스턴 시애의 廣東의 農民軍에 대한 論文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清朝의 改革에 의해 초래된 稅金

徵收에 대한 저항은 바로 惠州地域의 秘密結社의 反亂을 야기한 듯 싶다(시애, 1972:160-164). 마찬가지로 廣東의 델타지역에서는 改革에 대한 反感이 이면 市場圈에서 일어난 갑작스런 經濟的 不況과 연결되어 1911年的 反亂勢力を 낳았다(시애, 1974:331-133). 시에는 이러한 農民軍이 地域的團心事が 動因이 되어 거의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市場地域內에서 활동하였으며, 市場의 解體, 稅金의 增加, 또는 政府軍의 침입이나 外部의 간섭으로부터 그들의 地域을 수호하려고 하였다고 설득력있게 論하였다. 그것이 清朝의 改革家이었든, 胡漢民의 革命政權이었든지 간에 그들은 近代化 推進者로부터 거의 철저하게 유리하여 있었으며, 革命政權은 결국 그들을 강제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에 「階級의 分極化」는 辛亥革命 自體에로 이월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해, 러스트는 草命에 대한 에리트 中心의 解釋에도 전함에 있어 커다란 공헌을 하였지만, 그는 아마도 共和制樹立에 대한 民衆의 직접적인 寄與를 강조함으로써 딴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간 것 같다. 改革反對 쪽동

에서의 秘密結社와 改革反對 폭동에 있어서의 農民, 貧窮한 都市과 民 그리고 그밖의 다른 反體制勢力은 革命에 대하여 어느쪽이냐 하면 間接的으로 寄與하였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들은 1909~1911年間의 異常하게 폭동에서 그들의 힘을 들어내보였고 革命의 時期에 既存權威의 虛弱性을 이용할 차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革命을 前進시켰으나 항상 그들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은 아니다. 어느 경우에서나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諮議局, 總商會, 新軍, 地方自治公所 등의 에리뜨들의 機構의 여러 세력으로 하여금 자기들 자신을 위하여 不滿問題를 有利하게 利用하고 革命의인 巴多기의 와중에서 安定과 社會秩序를 보지하기 위하여 앞질러 革命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民衆的 要素는 革命의 到來에 중요하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공헌 방법은 불행히도 革命에 「法과 秩序」라는 도리어 保守的인 틀을 가져왔다. 만일 우리가 직접 革命에 참여한 「民衆」勢力を 찾으려 한다면

新軍이 유일한 가능대상일 것이다. 波多野善大는 이러한 軍隊가 「農民의 不滿을 조직된 革命的 形態로 성공적으로 연결시켰다」(波多野, 1968:382)⁽⁵⁾고 論한다. 그러나 清朝의 改革에 不滿이었던 者는 貧窮農民이지만 新軍中의 革命派는 대체로 農民들이 일반적으로 반대하였던 新式學校에서 교육받은 地主, 商人, 富農 출신이었다는, 그가 제시한 증거는 상당히 확실성이 있다. 더욱이 新軍兵士는 그들의 에리뜨出身의 將校에게 종속되었으며 그 將校는 따라서 어떠한 民衆的 革命에의 길로 떨쳐나가기보다는 文官紳士나 紳商과 연합하려는 경향을 보다 강하게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革命에 既成의 에리뜨體制와의 많은 타협에 반대하는 一急進的인 共和主義派가 있는 한 이 派는 新軍의 兵士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정도까지는 적어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派는 너무 약하여 그 스스로는 힘을 펼 수 없었고, (그 이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1913年에 일어난 第2革

(5) 이 論議는 이 論文보다 波多野善大的 日語로 된 研究에서 더욱 분명하다. 특히 그의「民國革命と新軍：武昌新軍を中心として」(〈名古屋大學論集〉14)를 보라.

命에서는 용이하게 분쇄되었으며, 여전히 農民의 根本的인 社會·經濟的 苦痛을 대변하기에는 먼거리에 있었다.

矛盾과 辭證法

辛亥革命時期에 관한 이러한 요즈음의 學間의 成果를 어떻게 정리할것인가?로서 데 휘지는 錫良에 관한 그의 著書를 19世紀末—20世紀初의 中國의 研究에서 나타나는, 즉 그가 「修正主義(再檢討必要)의인 共通見解」라 부르는 것에 대한 추적에서부터 시작한다 (1973:xii). 나는 어떤 그러한 共通見解가 存在한다고 믿지 않는다. 이 時代에 관한 學問이 점점 더 정밀해짐에 따라 더욱 다루기 힘든 問題들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歷史의 矛盾을 비추어주는 論爭들이 생겨났다. 나는 이와 다른 경향을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두 一致된 見解를 추구해야 한다면 歷史는 無意味한 一般性이나 단편적이고 意味없는 사실의 묶음이 진부한 투로 서술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진지리가 나 죽을 지경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辛亥革命이나 歷史上의 그 位置에 관해서는 거의 一致

된 見解가 없다. 대체로 두 學派가 있는데 그 한 派는(캐스터, 랜킨, 후리드만, 테 휘지, 라이트, 러스트 등을 포함하는) 거의 모두가 이 時代에서 後期의 中國 共產革命의 起源을 찾는다. 그들은 그러한 起源을 대체로 知的, 理念的發展 속에서, 急進主義, 無政府主義, 人民主義, 民族主義, 女權伸張主義, 共和制論 등의 「主義」 속에서 발견한다. 캐스터와 랜킨은 이러한 「主義」를 주로 革命陳管에서 찾았으며, 비록 이러한 「主義」는 辛亥革命 自體에는 제한된 영향력 밖에 갖지 못하였지만는 歷史의 未來의 進路를 형성하는데 역할하였으며 後期의 中國革命의 要素를 낳았다고(이런 저런 方法으로) 주장한다. 후리드만도 유사한 주장을 진행시키나 「主義」 대신에 宗教와 社會集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反面에 테 휘지, 라이트, 러스트는 이러한 「主義」가 1900年以後의 時期에 中國政府, 社會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대부분에 작용하였으며, 1911年에 일어난 事件에는 주목할만한 因果的 영향을 끼쳤으며, 20세기에는 단일방향으로 발전된 中國革命의 진보적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하려 한다.

또 하나의 주요한 學派는 共產 革命으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뒤의 中國革命이 끝장을 내려고 하였던 軍閥體制의 解體된 社會로 연결되는 社會的 展開를 본다. 市古와 그 支持者는 분명히 이 派에서 가장 현저한 者들이며 그들은 王朝崩壞의 과정에서 강화된 紳士와 鄉村에리뜨의 實權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學派는 近代中國의 地域割據傾向, 分省主義에 대한 후란쯔 마이클(Franz Michael)과 그외의 사람들의 理論과 많은 類似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마이켈은 太平天國과 그외의 反亂을 진압하였고 아래로 1910年代～1920年代의 軍閥主義로 연결되는, 地方別軍隊에서 연유하는 힘이 점점 커가면서 연결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1920: 導論). 1911年各省의 北京中央政府로부터의 獨立宣言은 이같은 연결 과정에서의 하나의 획기적 단계이다.

或者는 이 論爭에 대해 절망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中國이 거대한 革命을 향하여 形成되고 있었는가, 아니면 軍閥의 혼란에도 붕괴하고 있었는가 조차도 一致할 수 없는가? 그러나 한탄할 이유는 명백히 없다. 中國은 1911年부

터 軍閥主義, 革命 양쪽 모두에로 나아갔으며 歷史家는 1911年에서 그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原因을 발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時代의 同一한 양상 속에서 양쪽의 起源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分省主義를 例로 들어보자. 清末에 軍隊, 貨幣, 工業, 獨自의 省에 의해 또한 그 省을 위하여 제조된 武器 등을 生產한 省單位의 改革과 軍閥時代의 分裂된 政治體制間에는 분명한 연결이 있다. 反面 존 핀처(John Fincher)는 1911年的 地方主義는 「全國的 政治體制에로 指向된 것 이고」「國民主義에 방해가 되기 보다는 그것으로의 移行이었다」고 설득력 있게 論한다(핀처, 1968: 220). 各省은 자주 知識人이 그들의 國民主義的 計劃(그것이 鐵道나 鐵山利權의 回收이든, 工業發展이든, 立憲主義를 위한 政治的組織이든 간에)을 위한 基礎로서 택하는 단순히 가장 효율적인 단위였다. 그러므로 地方主義는 전적으로 退步的인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그 어떤 것은 이 時代가 산출할 수 있었던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國民主義였던 것이다.

分省主義가 國民主義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國民主

義自體의 畏장한 複雜性을 인식하는 途程에 들어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 전반에서 「中國의 國民主義의 發興」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 인식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전혀 無價値한 것이다. 우리는 「國民主義」의 相異한 形態는 相異하고 진실로 相反되는 政策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미 살핀 바와 같이 孫文과 같은 사람은 中國의 國民(民族)主義者도 될 수 있고 「帝國主義의 走狗」도 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면 國家를 強化하기 위하여 中國의 主權을 실질적으로 희생하고 外國借款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한 者도 있었다. 대체로 이들은 政治的 行政的 中央集權化의 主唱者들로서 清朝下에서의 盛宣懷와 宮廷勢力, 1912년의 孫文과 南京政府, 1913년의 北京의 袁世凱 등이 그에 해당하였다. 外國의 財政援助를 받는 이러한 종류의 全國的 中央集權化에 대한 反對者들은 저마다의 省에서 地方에리즈의 강력한 利權守護에 따라 帝國主義에 대한 抵抗을 형성하면서, 獨自의 國民主義 形態를 가진 各省單位의 利害關係者들이었다.

各省의 紳士는 진지한 民族主義者이면서 또한 그들 자신의 利益과 地位의 守護者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革命의 또 다른 중요한 矛盾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의 進步的 國民主義者的 動因에도 불구하고 各省의 紳士와 軍人(革命時期의 行動은 효율적으로一致하였던)은 革命으로 하여 實權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大衆은 그 강화된 힘으로부터 利益을 얻지도 않았고 또한 그것을 환영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1911年 前後의 이러한 知識人이 建立者이면서 受惠者이기도 하였던 改革에 대한 공격에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改革과 革命은 다 같이 社會的으로 退行하는 것이었다.

社會的으로 退行의 進路를 이러한 革命의 特質은 中國歷史의 進路를 후기의 더욱 커다란 革命으로 몰아가는 2개의 別個의 矛盾을 만들었다. 立憲主義, 共和主義, 「民權」의 言及 등은 儒教王朝인 清朝에 비하면 政治的 發展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革命은 社會的으로 退行의 반면에 政治的으로는 進步의 이었다. 中國革命의 다음 단계는 1911年에는 잊혀지

고, 두려워하고, 좌절되었던 社會 革命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로, 캐스터와 그의 사람들이 이 時代의 革命派의 雜誌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파악한 民族主義, 無 政府主義, 共和主義 등의 急進的 知識人의 至高한 理念과 革命의 보잘 것 없는 成就間의 矛盾이 있다. 五·四時期의 한 問題는 1911 年보다 더욱 철저한 社會的・文化的 革命이 中國의 現實을 中國의 指導的 知識人이 理想으로 하는 단계에로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此後의 辛亥革命에 관한 研究는 이러한 그리고 一群의 또 다른 矛盾과 당면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들은 제거될 수도 없고 兩刀論法의 한쪽 단을 택하는 식으로 다룰 수도 없다. 우리는 革命的 發展이면서 또한 王朝的 崩壞이기도 한 時代를 인식해야만 한다. 우리는 에리뜨의 힘은 成長하는 反面에 에리뜨層은 확장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에리뜨와 大衆 사이에는 새로운 聯合도 있었으며 새로운 分離도 있었다. 政治的인 進步도 있었으며 社會的 退步도 있었다. 分省主義는 國民主義도 될 수 있었고, 民族主義者

는 「帝國主義의 走狗」도 될 수 있었다. 至高한 理念이 自己利害를 위한 方法으로 촉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各 矛盾은 歷史에 内 在한다. 이미 그들은 이 비평이 다루고 있는 學問業績에서 생산적인 論爭을 낳는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의 論爭의 特徵은 더 세밀한 正確度와 더 높은 質과, 보다 증가된 集中度를 가진 것이 되기 바란다. 결국, 歷史 自體뿐만 아니라 그 歷史의 記述 自體도 또한 辩證法의 으로 前進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ALTMAN, A.A. and H.Z. SCHIEFRIN
 (1972) "Sun Yat-sen and the Japanese 1914-1961." Modern Asian Studies 6, 4 (October): 385-400.
- BARLOW, J. (1973) "Vietnam and the Chinese revolution of 1911."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BERGÈRE, M.C. (1968) "The role of the bourgeoisie," pp.229-295 in M.C. Wright(ed.) China in Revolution: The First Phase, 1900-1913. New Haven: Yale Univ. Press.

- BUCK, D. (1974) "Educational modernization in Tsinan, 1899-1937," pp.171-212 in M. Elvin and G.W. Skinner (eds.) *The Chinese City Between Two World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CHANG, P. (1968) "The constitutionalists," pp.143-183 in M.C. Wright (ed.) *China in Revolution: The First Phase, 1900-1913*. New Haven: Yale Univ. Press.
- DES FORGES, R.V. (1973) *Hsi-liang and the Chinese National Revolution*. New Haven: Yale Univ. Press.
- ELVIN,M.(1974) "The administration of Shanghai, 1905-1914," pp. 239-262 in M. Elvin and G.W. Skinner (eds.) *The Chinese City Between Two World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FASS, J. (1967) "Sun Yat-sen and the World War I." *Archiv Orientalni* 35, 1:111-120.
- FINCHER, J. (1968) "Political provincialism and the national revolution," pp. 185-226 in M.C. Wright (ed.) *China in Revolution: The Firt Phase. 1900-1913*. New Haven: Yale Univ. Press.
- FRIEDMAN, E. (1974) *Backward Toward Revolution: The Chinese Revolutionary Par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0) "'Revolution or just another bloody cycle?' Swatow and the 1911 revolution." *J. of Asian Studies* 39, 2 (February):289-307.
- GASSTER, M. (1969) *Chinese Intellectuals and the Revolution of 1911: The Birth of Modern Chinese Radicalism*.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 HSIEH, W. (1975) *Chinese Historiography on the Revolution . of 1911: A Critical Survey and a Selected Bibliograph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Peasant insurrection and the marketing hierarchy in the Canton delta, 1911," pp. 119-141 in M. Elvin and G. W. Skinner (eds.) *The Chinese City Between Two World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2) "Triads, salt smugglers, and local uprisings: observations on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Waichow revolution of 1911," pp. 145-164 in J. Chesneaux (ed.) *Popular Movements and Secret Societies in China. 1840-1950*.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HSUEH, C. (1961) *Huang Hsing and the Chinese Revolution*,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 JANSEN, M. (1954) *The Japanese and Sun Yat-se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ICHIKO, C. (1968) "The role of the gentry: an hypothesis." pp. 297-317 in M. C. Wright (ed.) *China in Revolution: The First Phase, 1900-1913*. New Haven: Yale Univ. Press.
- KAPP, R. A. (1974) "Chungking as a center of warlord power. 1926-1973." pp. 143-170 in M. Elvin and G.W. Skinner (eds.) *The Chinese City Between Two World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KUHN, P.A. (1970) *Rebellion and Its Enemies in Late Imperial China: Militarization and Social Structure, 1796-1864*.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LIEW, K. S. (1971) *Struggle for Democracy: Sung Chiao-jen and the 1911 Chinese Revolutio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LUST, J. (1972) "Secret societies, popular movements and the 1911 revolution," pp. 165-200 in J. Chesneaux (ed.) *Popular Movements and Secret Societies in China, 1840-1950*.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MICHAEL, F. (1964) "Regionalism in nineteenth-century China," introduction to Stanley Spector. Li Hung-chang and the Huai Army.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 MUNHOLLAND, J. K. (1972) "The French connection that failed," *J. of Asian Studies* 32, 1 (November): 77-95.
- RANKIN, M.B. (1971) *Early Chinese Revolutionaries: Radical Intellectuals in Shanghai and Chekiang, 1902-1911*.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RHOADS, E.J.M. (1975) *China's Republican Revolution: The Case of Kwangtung, 1895-1913*.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4) "Merchant associations in Canton, 1895-1911," pp. 97-117 in M. Elvin and G. W. Skinner (eds.) *The Chinese City Between Two World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SCHIFFRIN, H.Z. (1968) *Sun Yat-sen and the Origins of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WOLF, A.P. (1974) "Gods, ghosts, and ancestors," pp. 131-182 in A.P. Wolf (ed.) *Religion and Ritual in Chinese Society*. Stanford Univ. Press.

WRIGHT, M.C. [ed.] (1968) China in Revolution: The First Phase, 1900-1913. New Haven: Yale Univ. Press.

波多野善大(1956)「民國革命と新軍：武昌新軍を中心として」名古屋大學論集 14 : 33-58

譯者註

筆者는 오래전大學 中國史교수이며 1976년에 《中國에서의 改革과 革命：湖南과 湖北에서의 辛亥革命》을 出刊하였다. 이 論評의 뒤에는 여기서 논평된 사람들의 解明・抗議가 실려 있으나 여기서는 省略하였다.